

**전화기배터리용 커넥터
직접삽입방식 개발**

골든콘넥터산업

골든콘넥터산업은 최근 이동전화기 배터리용 커넥터를 기존 솔더링방식이 아닌 하우징에 직접 삽입하는 형태로 개발, 30% 이상의 원가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기존 이동전화기 배터리용 커넥터 방식은 플라스틱에 2~3개의 단자를 장착, PCB에 납땀하는 솔더링방식을 사용해왔으나 골든콘넥터산업은 이번에 플라스틱 없이 단자를 PCB에 직접 삽입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직접삽입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솔더링방식에 비해 30%이상 원가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기의 소형·경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콘넥터산업은 이동전화기 배터리에 이어 배터리팩용도 직접삽입방식으로 개발중이다.

**디지털 방송 녹화장비
개발**

두인전자

영상멀티미디어 전문업체인 두인전자는 디지털 방송녹화기 및 송출장비를 개발, 이번 「KOBAS 99」에서 선보인 것으로 시작으로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두인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디지털 위성방송 녹화장비 「SDVR100」은 동영상압축표준 규격인 MPEG2로 송출되는 디지털 위성방송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장비로 현재 국내에서 시청 가능한 KBS·EBS·OUN 등 국내 8개 위성 채널과 외국 10여개 위성에서 송출하는 130여개 채널의 위성방송을 녹화할 수 있다.

또한 전송받은 영상을 화질저하 없이 그대로 저장할 수 있음은 물론 실시간 녹화 및 예약녹화기능 등도 갖춰 케이블 TV프로그램공급사(PP), 광고업계, 중계유선방송사, 대학교내 멀티미디어 어학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럽·아시아 본격
수출**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대체 냉매를 적용한 절전형냉장고를 유럽 및 아시아지역에 수출한다.

대우전자는 올초 출시한 99년

형 냉장고 「동시만족」에 대체냉매인 「HCFC-134a」를 적용해 소비전력은 36~42KW 수준을 유지한 500~650 l급 절전형냉장고 3개 모델을 개발,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지에 2000~3000대 가량을 선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수출에 나선다.

대우전자는 이어 이번달부터 대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에도 현지법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현지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1000~1500대 가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우전자는 올해 유럽 및 아시아지역에 매월 5000대 이상을 공급, 총 3만대 가량을 수출하고 내년에는 수출물량을 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9만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9년형 컬러 TV
'ZINKA' 개발**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화질과 음질기능 및 디자인을 한차원 높인 99년형 컬러 TV 신제품 「ZINKA(진가)모델명 : DTQ-29X9, 34Z9」을 개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대우전자는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개벽' 브랜드를 대신해 새로운 브랜드인 'ZINKA'라는 브랜드를 채용했는데 이는 빅딜로 인해 어려웠던 내수시장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재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으며 "THE VERY BEST"라는 슬로건으로 기본기능에 보다 충실한 한단계 향상된 진정한 가치를 지닌 TV로 시청자에게 한층 더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대우전자는 PDP TV에 사용했던 'SUMMUS(써머스)' 브랜드는 고급형 첨단 이미지제품에 사용하고 이와 함께 'ZINKA(진가)'를 중·고급형 TV 브랜드로 이원화하여 육성할 방침이다.

대우전자의 진가 TV는 선명도와 밝기를 동시에 향상시킨 고선명 브라운관인 '파워트론'을 채용했는데 이 브라운관은 기존 다크코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밝기의 떨어짐을 최대한 억제했고 자동밝기 변조회로를 채용하여 화면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혁신적인 브라운관으로 다크티트 브라운관으로 구별할 수 없던 어두운 물체까지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또 TV 전면에 대우전자가 2년여 연구 끝에 완성한 디지털 센서를 장치하여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인간의 눈에 가장 편안하고 시청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상화면을 제공하여 최적의 화질

을 구현하도록 자동영상 조절기능을 채용했다.

전자레인지 요리거울 “똑딱” 출시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요리거울'과 '멀티전자총'으로 전자파의 최적의 분산과 집중을 통해 탁월한 조리 성능을 실현한 전자레인지 요리거울 똑딱(모델명 : KOR-860K, 용량:26리터)을 출시,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안테나의 원리를 이용한 요리거울은 전자파가 조리물에 집중하여 맛있는 조리를 가능하도록 전자파를 안내하고 멀티전자총은 전자파가 분사되는 토출구를 2개로 분리시켜 전자파 사각지대를 없애 주는 기술로 기존제품에 비해 수직(상하)온도 편차를 24%, 수평 온도 편차를 63%나 개선시키고, 조리시간도 단축시켰다.

대우전자는 2년에 걸쳐 15명의 인력과 30억원의 투자를 통해 요리거울의 지름과 위치를 최적화하는 데 성공하여 국산신기술(KT)마크를 획득하고,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편 미국, 유럽 등 16개국에서 특허 출원 중이다.

14.1인치 노트북 PC개발

멀티캡

멀티캡은 14.1인치 대화면 노트북 PC(모델명 리베로 9610)를 개발, 지난달부터 국내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멀티캡이 이번에 선보인 「리베로 9610」은 14.1인치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 모니터를 비롯해 인텔 펜티엄 II 333MHz 중앙처리장치(CPU), 64MB 기본메모리, 4.3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24배속 CD롬 드라이브 등을 내장하고 있다.

메디슨 이민화 회장 '밀레니엄 리더' 선정

메디슨

메디슨의 이민화 회장이 홍콩에서 발간되는 영자 시사 주간지 「아시아위크」가 선정한 「리더스 포 더 밀레니엄」 20인에 선정됐다.

99만원짜리 PC '드림시스 EZ'
출시 보름만에 판매 팔려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가 선보인 100만원 미만 저가 PC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삼보컴퓨터는 자사의 99만원 짜리 PC인 「드림시스 EZ-6400S」가 출시된 지 보름만에 1만대가 판매되는 등 단일모델로는 매우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드림시스 EZ-6400S」 판매호조와 관련, 삼보컴퓨터는 PC제품과 가격에 대한 고객 요구와 IMF 이후 컴퓨터 시장 흐름을 정확히 파악한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이 회사는 최근 소비심리 회복과 컴퓨터 2000년(Y2K) 문제 대응, 오는 2000년 대입 교과목 채택 등으로 PC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도 「드림시스 EZ-6400S」의 판매를 늘리고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드림시스 EZ-6400S」는 셀러론 400MHz 중앙처리장치(CPU)에 32MB메모리, 4.3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32배속 CD롬 드라이브, 56kbps 모뎀 등을 기본으로 내장해 문서작성은 물론 인터넷과 PC통신 등 첨단 멀티미디어 환경을 지원한다.

42인치 고품질 PDP
개발

삼성전관

삼성전관은 화질을 대폭 향상시킨 초경량·초박형의 42인치 와이드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발광량이 적고 소비전력이 많아 고품질 화면을 얻지 못했던 기존 PDP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90여명의 연구인력과 20억원의 역구비를 투입, PDP 내부의 구조설계를 변경해 소비전력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화질을 향상시킨 PDP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삼성전관측은 「이번에 개발된 PDP는 화질 선명도를 나타내는 휘도(밝기)와 콘트라스트에서 각각 800칸텔라와 1000대 1을 나타내고 있어 일본 마쓰시타의 동급 제품보다 화질면에서 월등히 향상된 제품」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벽걸이 TV기술을 한걸음 앞당기면서 디지털 TV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매출 10조원
달성

삼성전관

삼성전관은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대비, CRT 이외의 PDP와 EL·FED 등 새로운 디스플레이에 대한 신규 투자 확대와 함께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경상이익률 10%를 확보, 오는 2005년 10조원의 매출에 1조원의 경상이익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인터넷의 활성화와 디지털방송으로 디스플레이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브라운관에 치우친 외발이형 사업구조를 크게 CRT와 PDP·전자사업군 등 삼발이 형태로 가져가기로 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오는 10월 말 시생산에 나서는 월 1000장 규모의 PDP 시험생산라인을 기반으로 내년중에 2000억원 가량을 투자, 연 10만장 규모의 PDP설비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 90년 초 삼성전자로 이관한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 사업에 대한 진출 마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로부터 사업이관이 어려울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LCD사업을 바탕으로 반사형 TFT LCD 등 새로운 방식의 TFT LCD사업에 투

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회사는 시험생산에 머무르고 있는 전지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확대, 브라운관에 버금가는 21세기의 주력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브라운관 이후의 시대에 대비, FED·EL 등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발굴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관은 회사를 새로운 사업구조 걸맞은 이름으로 변경, CI작업에 나서는 한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전문기업으로 변신 선언

삼성전기

국내 최대의 종합부품회사인 삼성전기가 인터넷 전문기업으로 변신한다.

삼성전기 이형도사장은 지난 6월 1일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방송한 월례사에서 「회사의 강점인 RF(고주파)기술 등을 바탕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전체매출의 절반이 넘는 약3조원 가량을 인터넷 관련 제품판매를 통해 올리는 등 인터넷제품을 향후 회사의 핵심전략사업으로 집중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기는 인터넷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원급을 팀장으로 하는 인터넷 T/F팀을 구성하여 사내 인터넷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선진업체와의 인터넷제품 공동개발 및 생산 등 전략적 제휴를 다각도로 추진중이다.

삼성전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관련사업은 웹TV용 셋탑박스, 고속 인터넷 접속 단말기, 홈 네트워크분야 등인데 이들 중 일부 제품들은 해외업체에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기는 미국의 A사에 IP폰(Internet Protocol Phone: 인터넷 전화기)을 공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웹(Web)TV용 셋탑박스, 디지털 변환 셋탑박스, ADSL용 모뎀 등을 세계유수의 인터넷 전문기업에 각각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관련제품에서만 연간 5천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웹TV용 셋탑박스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멕시코공장에서 공급할 계획인데, 제품 생산을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홈 네트워크시장 진입의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네트워크용 16M 싱크로너스 S램 세계 첫 개발

삼성전자

S램의 주력 시장이 PC의 캐시메모리에서 네트워크 분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S램 분야의 선두업체인 삼성전자가 네트워크용 초고속 16M 싱크로너스 S램 출시에 경쟁사에 비해 6개월 정도 앞선 것이다.

이 제품은 현재 네트워크 장비에 채택되고 있는 싱크로너스 S램에 비해 데이터를 읽고(Read) 쓰는(Write) 기본 동작 전환시 2배 이상 빠른 속도를 구현하는 초고속 네트워크 전용 메모리다.

또 150M의 작동 속도로 현존 네트워크용 S램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지원하며 읽기와 쓰기의 데이터 교환시 순간적인 데이터 지체 현상이 발생하는 기존 S램의 단점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이례적으로 Nt RAM(No turnaround RAM)이라는 상표와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실시, 초고속 S램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Nt RAM이란 S램이 작동할 때 읽기, 쓰기로 변경되는 데이터 신호를 지체없이 전송한다는

의미로 미국·일본·유럽 등 12 개국에 상표 등록을 출원한 상태다.

현재 S램 분야는 PC의 캐시 메모리용 1M·2M·4M·8M 제품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통신 인프라가 대용량·고속화 하면서 네트워크 장비의 S램 채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네트워크용 S램 메모리 시장은 지난해 37억달러 수준에서 매년 40% 이상 고성장을 지속, 2001년에는 100억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1기가 DDR 싱크로너스 D램 세계 첫 개발

...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회로선폭 0.13미크론의 초미세 가공기술을 적용한 1기가(G) DDR(Double Data Rate) 싱크로너스 D램의 상용 제품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데이터 처리속도가 350Mhz에 달하는 1G DDR 싱크로너스 D램의 개발을 완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엔지니어링샘플(ES)공급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1G DDR 반도체 개발은

0.13미크론(1 μ m은 100만분의 1m)의 초미세 가공기술을 800여개의 전체반도체 공정에 적용, 양산 가능성을 검증한 것으로 칩 크기가 경쟁업체들이 개발중인 1G D램 반도체보다 30~40% 작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0.18미크론 공정을 적용한 1G D램의 엔지니어링 샘플을 선보인 데 이어 이번에 1G DDR 싱크로너스 D램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차세대 D램 초기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최고속 알파칩 개발

...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속도의 알파 마이크로프로세서(CPU)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PC엑스포 전시회를 통해 64비트 1Ghz급으로 최근 인텔이 발표한 550Mhz급 CPU보다 데이터 처리속도가 2배 가량 빠르다.

1Ghz의 처리속도는 초당 1만 8000개 이상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타이타닉」같은 역동적인 영화 화면의 경우 32비

트 550Mhz CPU가 초당 15개 화면 정도를 처리하는데 비해 64비트 1Ghz 알파칩은 초당 60개 정도의 화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1기가 알파칩 개발에는 회로선폭 0.18 μ m(1미크론은 100만분의 1m)의 초정밀 비메모리 공정과 6층 메탈, 다층배선기술이 적용됐다.

0.18 μ m 공정기술의 적용으로 삼성은 기존의 0.25 μ m 제품보다 약 1.5배 이상 동작속도를 높이고 칩사이즈를 크게 줄였으며 내부 동작전압도 2.0V 수준으로 낮췄다.

특히 1기가 알파칩은 윈도 NT·리눅스 등 새로운 64비트급 컴퓨터 운영체제를 완벽하게 지원함으로써 고성능 PC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등의 각종 첨단 시스템에 확대 채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현재 알파 CPU의 주력시장인 고성능 컴퓨터 시장은 물론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멀티미디어 기기 등의 각종 첨단 분야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디지털 녹음기 공동 개발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분사회사인 심스

벨리와 공동으로 8MB메모리반도체칩 하나로 최대 4시간까지 연속으로 음성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는 디지털 녹음기인 「보이스펜 프로」를 개발,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8MB 플래시메모리를 사용하는 디지털 녹음기중 4시간 연속으로 녹음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이스펜 프로는 기존 제품에 비해 녹음시간이 3배 정도 길며 최대 199개까지 새로운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제품은 테이프 대신 작고 가벼운 플래시메모리를 내장함으로써 초소형·초경량을 실현했으며 고장이 적고 선명한 음질을 제공한다.

또한 녹음내용을 PC로 전송해 편집·저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우편을 통해 음성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다.

특히 보이스펜 프로에는 전화 통화중 메모를 많이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전화기와 바로 연결하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있다.

캐나다 '노텔' 과
'IMT2000제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캐나다 노텔과 손잡고 차세대 이동전화(IMT2000)세계 주요 장비업체들이 IMT2000시장 선점을 겨냥, 전략적 제휴를 활발히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단말기업체가 시스템업체와 협력, 동반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세계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단말기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업체라는 점에서 노텔과의 제휴를 통해 IMT2000단말기를 공급할 경우 시장 지배력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노텔네트웍스와 IMT2000 단말기 및 시스템 공동개발, 해외시범사업 공동 실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따라 노텔은 IMT2000시스템을 삼성전자는 이에 적용되는 단말기를 개발, 공동 공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우선 노텔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내년 2·4분기부터 시작하는 IMT2000시범 서비스에 단말기를 공급하게 되고 상용서비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말기를 납품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시범서비스용으로 공급하는 제품은 동기식인

CDMA2000을 기반을 기존 PC용 모뎀인 56kbps보다 2.5배 이상 빠른 초당 144k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 접속 및 동영상 전송 등 다양한 부가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CDMA 방식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삼성은 앞으로 단말기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2Mbps까지 올려 완벽한 무선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T2000은 최근 동기식 및 비동기식을 절충한 단일 표준이 확실히 되고 있고 특히 기존 CDMA와 호환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 절대적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보급형 디지털 TV

개발

삼성전자

1만달러에 육박하는 디지털 TV의 가격을 3분의 1이하로 낮춘 보급형 디지털 TV가 삼성전자에 의해 개발돼 전세계적으로 디지털방송은 물론 디지털TV의 보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기존 제품에 비해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춘 분리형

방식의 보급형 방식의 보급형 디지털 TV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지난달부터 미국 디지털 TV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 수출에 나섰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보급형 디지털 TV는 디지털 방송이 일반화될 때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고선명 화질로 시청하고 2~3년 후 디지털 방송이 본격화되면 분리형 디지털 세트톱박스를 별도로 구입, 장착해 사용할 수 있는 분리형 제품이다.

특히 기존 디지털 세트톱박스 내장형 디지털 TV와 마찬가지로 초대형 TV의 주사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순차주사방식을 채용해 1080i해상도를 구현하는 등 화질과 음질 등 성능면에서 기존 디지털 TV의 기능을 그대로 구현했다.

**탄소나노튜브 FED
기술 세계 첫 개발**

삼성종합기술원

삼성종합기술원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나노튜브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FED(Field Emission Display)를 구현하는 신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삼성종합기술원의 김종민 수석연구원은 지난 97년부터 과

기처의 창의적 진흥사업 과제로 전자방출원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최근 전자를 방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탄소나노튜브를 적용, 4.5인치 FED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지난달 중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에서 발표했다.

삼성종합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전자를 방출하는 탄소나노튜브 기술의 응용분야는 광범위한 것으로 세계에서 처음을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FED에 탄소나노튜브의 기술을 적용하는데 성공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기초 단계로 앞으로 탄소나노튜브의 대량생산공정기술과 재료 등의 개발이 뒤따를 경우 5년 이내에 제품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탄소나노튜브 FED는 시야각이 뛰어나면서 구동 전압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박형으로 박만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ET LCD)의 평판디스플레이에 비해 저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형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삼성종합기술원은 앞을 2~3년내에 탄소나노튜브로 동영상 구현하는 기술개발 등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기반도체 콘덴서 개발



삼화전기가 일본에서만 개발·생산되고 있는 유기반도체(Organic Semiconductor) 콘덴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OS콘덴서는 전해콘덴서의 일종으로 기존 전해콘덴서가 이산화망간이나 전해액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유기반도체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유기반도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삼화전기는 OS콘덴서에 채택된 유기반도체는 고전도성 소재로, 대용량 콘덴서라는 장점을 가진 반면 주파수특성 온도특성이 나쁘고 누설전류·유전체 손실이 큰 일반 전해콘덴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재라고 설명했다.

OS콘덴서는 이에 따라 필름 콘덴서 수준의 고주파특성을 갖게 되며 손실 값이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 노이즈 제거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삼화전기는 이 OS콘덴서가 일반 전해콘덴서 100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삼화전기가 이번에 내놓은 OS 콘덴서 제품은 칩형(모델명 FC)

과 리드형(모델명FX) 두가지로 현재 일본에서는 산요전자부품이 리드형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릴레이 3개 모델 개발

유유

릴레이 생산업체인 유유는 최근 고용량 릴레이 3개 모델을 개발, 생산에 들어가는 등 생산모델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유는 최근 에어컨·세탁기·전자레인지 등에 사용되는 20·30A급 고용량 파워릴레이를 개발, 가전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승인 획득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이 제품들을 월 20만개씩 생산·판매하는 한편 생산품목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3A이하의 초소형 릴레이를 개발, 내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명함 CD’ 개발

SKC

SKC는 기존 종이명함을 대체

할 수 있는 명함 CD 「BIZ CD」를 개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명함 CD는 크기와 모양이 기존 종이재질의 명함과 같으며 자신 및 회사를 소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30MB(A4용지 1000장 분량)까지 저장할 수 있고 CD롬 드라이브를 통해 재상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요 프로필, 회사소개 브로셔 등을 동영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SKC는 명함 CD가 최근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디어 상품으로 수출과 함께 약 1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제품에 대해 국내 특허출원을 마친 데 이어 해외 특허도 조만간 출원할 계획이며, 소비자 취향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대형 프리폼 세계 최초 개발’

LG전선

LG전선이 광섬유를 한 번에 450km까지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광섬유프리폼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 했다고 밝혔다.

LG전선이 지난 2년간 30억원

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초대형 광섬유 프리폼은 석영튜브에 화합물을 넣어 프리폼을 만드는 MCVD(Modifie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법을 이용했다.

광섬유 프리폼은 광섬유를 만들기 위한 석영 봉으로 광섬유 및 광케이블에 사용되는데, 생산과정에서 불순물이 포함되기 쉽고 단락이 발생해 지금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길이는 국내외를 통틀어 350km가 최장이었다. 하지만 LG전선은 석영튜브의 증착·접합 등 대형화 공정에 따른 불순물을 제거하는 등 공정의 불안정성을 해소, 대형 제품의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 회사는 설비나 인원을 늘리지 않고 광섬유 및 광케이블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돼 제품 생산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코닝·루슨트테크놀로지스, 프랑스의 알카텔 등 세계유수의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DVD 주도권 확보

LG전자

LG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디

지털다기능디스크(DVD)램 규격이 DVD관련 세계 규격을 제정하는 DVD포럼에서 새로운 국제표준규격으로 완성됨으로써 국내 DVD관련 기술이 세계 수준급업이 입증됐다.

LG전자는 지난달 열린 DVD포럼 워킹그룹회의에서 LG전자가 20여건의 기술을 제안한 기억용량 4.7GB(기가 바이트)의 DVD램 규격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최종 완성됐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이번에 주최한 DVD국제포럼의 「워킹그룹5」는 가정용 녹화장치로 각광받고 있는 DVD램의 규격을 정하는 실무그룹으로 LG전자와 삼성전자를 비롯 일본의 히타치, 마쓰시타, 도시바, 소니, NEC 등과 미국의 코닥, IBM, 타임워너, 시러스로지, 프랑스의 톰슨 등 총 44개의 DVD관련 전자업체들과 소프트웨어 업체, 미디어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DVD램 신규가격의 용량은 재생전용 DVD 용량과 거의 같은 4.7GB로 기존 규격인 2.6GB를 크게 웃도는 것이며 이번 표준규격의 완성으로 올 하반기부터 AV기기 제조업체들의 광디스크를 이용한 가정용 녹화장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새로운 DVD램 규격이 채택됨에 따라 LG전자는 그동안 CD롬, DVD롬, CD-RW등 광기록 저장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내년

중 4.7GB DVD램 제품을 개발, 오는 2003년 2000만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DVD램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루마니아·불가리아 시장점유율 '1위'

LG전자

LG전자가 동유럽지역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LG브랜드로 진출한 지 2년만에 현지 최고의 전자제품 브랜드로 올라섰다.

LG전자는 현재 루마니아 현지시장에서 컬러 TV와 청소기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8%, 20%로 소니·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불가리아에서도 컬러 TV는 24%, 전자레인지 36% 등으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영어학습 TV시판

LG전자

LG전자가 TV를 보면서 영어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29인치형

「신랑각시영어학습」TV를 개발, 지난달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TV화면 왼쪽 상단에 영어 단어·발음기호·뜻·동의어를 표시해 TV를 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 상품이 다.

TV시청 시간 및 영어능력에 따라 단어수와 복습기능을 선택할 수 있으며 3250개의 숙어를 포함한 2만개의 단어와 1600개의 간단한 생활영어도 수록됐다.

이 제품에 수록한 영어 단어 데이터베이스는 서울대 언어공학연구소와 LG전자가 7개월에 걸쳐 공동개발했다.

별정통신사업자용 대용량교환기 공급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이 별정통신 1호사업자인 한호통신에 자체 개발한 별정통신용 대용량교환기(모델명:STAREX-TX1)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STAREX-TX1은 12만회선급의 대용량 국설교환기로 초기에 2천회선이 구축되지만 향후 최선증설이 용이해 확장성이 뛰어나며, No. 7 국제규격을 만족시켜줌으로써 독자적으로 국제전화 연결이 가

능하다.

또한 시외 및 국제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인증서버를 국내 최초로 국설교환기에 접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별정통신서비스를 가능케 했다.

LG정보통신은 미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해리스(Harris)를 비롯한 국내외업체들과의 공개경쟁을 통해 기술 및 가격경쟁력에서 앞서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LG정보통신은 이 교환기를 별정통신사업자에 맞는 다양한 기능을 접목시켜 테스트와 설치작업을 진행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품공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업자 등에 CDMA 휴대폰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휴대폰 수출이 연말까지 6억불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계약이 이뤄진 루마니아, 러시아 등에 CDMA 방식의 무선가입자망(WLL)시스템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WLL수출도 1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LG정보통신은 브라질의 통신운영사업자인 Tele-RJ 및 Tele-SP와 각각 30만대씩 총 60만대의 CDMA 휴대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올 상반기까지 35만대의 CDMA 휴대폰(모델명:LGC-330W)을 공급했으며 베네주엘라의 Telcel에도 올 연말까지 15만대의 단말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것은 티엘아이의 처음이다.

지난 1년간 총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이 제품은 MP3데이터 복원시 고정 소수점 방식을 사용하는 기존 제품과 달리 자체 개발한 고성능의 32비트 부동 소수점 방식의 디지털신호처리기(DSP)를 채택, MP3 표준의 최고 수준인 FA(Full Accuracy) 규격을 완벽하게 만족하는 고음질을 실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12비트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ADC)를 내장, 최장 9시간의 음성 녹음·재생 및 음질 선택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MP3 규격을 지원한다.

특히 휴대형 기기에 적합하도록 2.4V의 저전압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CDMA 제품
7억불이상 수출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이 CDMA 단말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 한 해만 CDMA 관련 제품 수출이 7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LG정보통신은 올 상반기에 브라질, 베네주엘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 CDMA 휴대폰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북미의 Airtouch, BAM, GTE, Ameritech 등의 4대 메이저 운영

MP3플레이어 핵심칩 디코딩 IC
국내 첫 양산

티엘아이

반도체 설계 분야의 벤처기업인 티엘아이가 차세대 휴대형 디지털 오디오기기로 부상하고 있는 MP3플레이어의 핵심칩인 디코딩 IC를 개발, 양산에 나선다.

지금까지 일부 국내업체가 MP3디코딩 칩을 개발한 적은 있으나 실질적인 양산에 나서는

6팩 다이오드 모듈 개발

한국전자

한국전자는 3상 교류(AC) 입력전원을 트랜지스터 등의 다른 소자들이 구동할 수 있도록 직류(DC)로 변환, 정류할 수 있도록 6개의 다이오드를 하나의 패키지 안에 내장한 최대 1600V, 100A급 6팩(Pack)다이오드 모듈(제품명 RM100TF-16)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정부지원자금 1억

2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여원을 투자, 한국전기연구소 김은동 전력반도체팀과 공동으로 1년여만에 개발한 이 제품은 역방향 누설전류, 순방향 전압강하, 서지(Surge)전류 등의 전기적 특성과 함께 열특성, 열피로 수명시험 등을 거쳤다.

이 회사 측은 「지난 97년 2팩 다이오드모듈을 개발한 데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6팩 제품을 개발함에 따라 수입대체 효과와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게 됐고 앞으로 더욱 향상된 반도체 모듈 개발을 위한 기술적인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에 개발한 패키징(실장)기술은 지능형 모듈(IPM), 하이브리드 집적회로(IC), 표면실장(SMD)기술, 다중칩(Multi Chip)모듈 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시제품을 국내 사용업체에서 실장평가한 후 양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며 일본·중국 등으로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처리속도를 가진 200MHz급 그래픽용 16M 싱크로너스 D램(SD램)을 양산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PC의 메인 메모리로 사용되는 일반 16M SD램과 생산 원가는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고수익 제품이 다.

현대전자는 지난 4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183MHz급 16M SD램과 이달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200MHz급 제품을 월 300만~500만개 규모로 생산, 고속 그래픽용 16M SD램 분야에서만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 차세대 그래픽용 메모리인 64M SD램을 월 100만개씩 생산, 연간 1억달러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어 그래픽용 고속 SD램 분야에서 올해 3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그래픽용 16M SD램과 64M SD램의 가격은 각각 3~4달러, 12~14달러로 일반 SD램보다 2배 이상 비싸고 미국 다이아몬드사 등 세계 유수 그래픽회사로부터 공급 요청이 쇄도하는 등 당분간 공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반도체 연구 권소사업 '세마테크' 프로그램 참여 확대

...

현대전자

현대전자가 300mm 웨이퍼를 비롯한 각종 반도체관련 기술표준화단체인 「인터내셔널 세마테크(International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ECHnology)」에 대한 사업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 회사는 그동안 인터내셔널 세마테크의 정회원으로 참여해 온 300mm 웨이퍼관련 기술분야 외에도 올해부터 추진될 인터커넥트(Interconnect)·전공정 프세스(Front-end Processes)·어드밴스트 테크놀로지(Advanced Technology) 등의 각종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번 현대전자의 세마테크 프로그램 참여 확대는 반도체관련 주요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국가간 공동 협력체제에서 추진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이고 개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세계서 가장 빠른 200MHz급 그래픽용 16M SD램 양산

...

현대전자

확장형 기지국 장비
개발

현대전자

현대전자는 국내 이동통신장비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CDMA 방식의 디지털휴대폰서비스용 「확장형 기지국(Extended CoverageBTS)」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 완료된 확장형 기지국장비는 기존의 일반 기지국(BTS)장비가 최대 50km 이내의 반경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한 것에 비해 최대 200km까지 사용범위를 확장시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막이나 초원, 해안지대 등 저밀도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폭 넓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이루어져 향후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이동통신망 구축 및 운용이 가능하게 됐다.

현대전자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과 제주도·거제도·목포지역 등 도서·해안지역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기지국 필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이들 사업자와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위한 장비 공급을 추진중이다.

독일서 '최우수 오디오'
선정

해태전자

해태전자의 세계적인 수출브랜드인 셔우드오디오가 독일 AV전문지인 「스테레오(6월호)」에서 실시한 홈시네마 테스트에서 아이와·하만카든·온고 등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최우수 오디오로 선정됐다.

이 잡지는 셔우드 오디오(모델명 RVD6090RDS)가 음질·기능·가격대비성능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며 특히 다양한 입출력 단자를 채용한 확장성을 높이 평가했다.이번에 최우수 오디오로 선정된 RVD-6090RDS는 돌비 디지털 방식을 기본으로 채용하고 있는 중저가 AV리시버앰프로 디지털신호처리기(DSP)를 이용한 다양한 음장모드와 확장성을 고려한 6채널 입력단자, 안방극장의 사운드 최적화를 위한 시네마 이퀄라이저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해태전자는 이 제품이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하반기 수출확대에 한몫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 정상화 '눈앞'

해태전자

해태전자가 올들어 오디오 및 통신기기의 내수판매 호조에 힘입어 뚜렷한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태전자는 지난 1·4분기 내수와 수출을 합쳐 79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80% 이상 매출이 급증했을 뿐 아니라 부도이전인 지난 97년 매출액의 80%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 돼 경영정상화에 한걸음 성큼 다가선 것으로 나타났다.

2·4분기 들어서도 이같은 매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4월과 5월에 각각 313억원과 360억원의 매출 실적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5억원과 184억원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달에는 360억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해 부도이전인 97년의 월 평균매출 실적(350억원)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같은 매출실적은 지난해 부도사태와 IMF한파에 따른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수익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인력을 50% 이상 감축한 상태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겉으로 드러난 수치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게 해태전자측의 설명이다.